

# 설 명절 대비 산재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

-'25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, 설 명절 전 발생 가능성 높은 산재 예방 집중-

고용노동부(장관 김문수)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설을 앞둔 1월 22일(수),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,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.

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\*을 중점 점검\*\*한다.

\* 【추락】 비계<sup>1</sup>, 지붕<sup>2</sup>, 사다리<sup>3</sup>, 고소작업대<sup>4</sup> 【끼임】 방호장치<sup>5</sup>, 정비 중 운전정지(Lock Out, Tag Out)<sup>6</sup>, 【부딪힘】 혼재작업<sup>7</sup>, 충돌방지장치<sup>8</sup>

\*\* 최근 5년간(20~24년) 설 명절 전후 사망사고 유형을 파악한바 추락과 끼임의 비중이 평소 대비 증가

특히,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①지붕, 단부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 현장, ②위험 기계·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, ③화재·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.

한편,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기간(1.27.~1.30.) 본부·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, 위험상황신고실(1588-3088)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.

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“설 명절 전후 많이 발생하는 추락·끼임 사고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”라고 하면서, “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조금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배영일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화 (044-202-8914)
			주무관	전재영 (044-202-8915)
			차 장	이원근 (044-202-8822)

출근에서 퇴근까지  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,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

중대재해 발생의 62.6% 를 차지하는

**3대 사고유형**  
**8대 위험요인**  
**특별관리**



출근에서 퇴근까지  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,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

중대재해 발생의 65.4%를 차지하는  
**3대 사고유형**  
**8대 위험요인**  
특별관리

건설업 분야

